

# 녹음기를 이용한 野外踏査

H.J. Walker\*

玉 漢 錫 譯

野外調査를 하는 거의 모든 研究者들은 그 자신의 필요와 기질에 맞는 테크닉을 개발하게 된다. 지난 십 수년간 나는 수집하여 보존해야 하는 자료를 체계화하여 최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한 테크닉이 널리 이용되지는 않으나 간략히 소개하는 것은 價値가 있는 일일 것이며 타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를 채택하거나 수정하여 보고 싶어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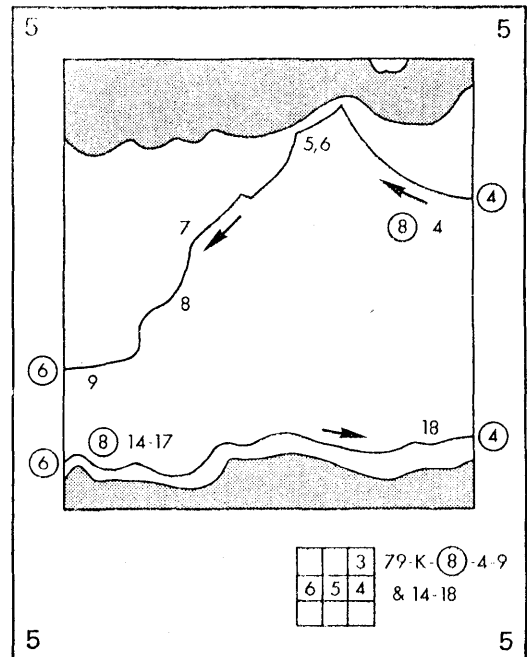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그 절차는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녹음기, 野外用 地圖와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野外 踏査者들이 이미 地圖와 카메라, 踏査 노트를 사용하여 왔지만, 野外에서 기록하기란 여건이 어렵고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특히 거친 도로를 달리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개 녹음기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野外踏査 노트를 팽개치자는 것은 아니며 야의 스케치를 뛰어내게 잘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踏査에 앞서 나는 研究地域의 地形圖나 기타 지도를 구한다. 연구 지역이 자신의 연구실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적 답사일 경우 1:250,000 지도를 보통 이용하는데, 이들 지도는 비교적 빨리 여행할 때 한 지도에서 다음 지도로 넘겨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적고 또한 한 지역을 개관하여 답사하기에 충분한 그런 축적을 갖고 있어 적당하다. 정밀 조사를 위해서 나는 1:25,000 地形圖를 선택한다.

녹음기는 보존해 두고 싶어하는 景觀의 어떤 資料를 기록해 두는데 사용된다. 녹음 테이프에

走行距離인 km당 위치, 지역의 이름 및 시간을 녹음하게 된다. 나는 지도에 간략한 노트를 해 두기는 하지만 사진을 찍은 번호 정도를 표시할 뿐이다. 부수적으로 地圖 뒷면은 白紙이므로 野外 스케치를 하는데 그 여백을 이용하기도 한다

踏査에 앞서 研究地域의 출발지 地圖로 부터 차례로 일련 번호(1, 2, 3)를 각각의 장 모서리에 기재한다. 이들 번호는 踏査가 이루어지고 있는 地域이 어느 지도에 해당하는 가를 알려주는 길잡이이다(그림 1) 이러한 테크닉은 한국을 답사한 나의 경우에처럼 지도의 도엽 이름을 알지 못하는 외국 지도를 사용할 때 특히 유익하다.



\* J. Walker 교수는 Louisiana State University의 지리학과 교수이고 IGU 미국 위원회 대표이며 해안 지형이 주전공임.

踏査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후 그의 번호를 연필로 地圖의 적당한 여백에 표시한다. 종종 화살표를 표시해 두는데 이는 사진을 찍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진에 관한 정보 또한 녹음기에 녹음한다. 地域資料가 필요한 곳에서 그 지역 居住者가 직접 말한 것이나 그곳에서 또는 자동차에 돌아와서 첨가해야 할 것을 보존해 두기 위해서 녹음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생생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사실 지역 주민들은 녹음기에 자신의 육성이 녹음되고 또 그것이 가치있는 자료로 쓰이게 된다는 사실을 좋아하는 것 같다. 다른 分野의 연구자들과 같이 踏査를 하고 있다면, 그들과 직접 討論한 것들을 녹음할 수도 있고 특히 쟁점이 되는 토의일 경우 녹음과 동시에 사진을 찍어 놓아 후일 가치있는 분석을 하는 것이다.

踏査를 끝낸 후 調査者들은 사진, 녹음 자료, 註를 단 地圖 등 세가지 종류의 資料(답사 노트가 있다면 넷)를 갖고 이를 분석하게 된다. 사진(나의 경우에는 라이드)을 현상하여 번호를 매기고(나는 그것을 순서대로 붙였는데, 예를 들어 79-K-⑩-5는 1979년 한국에서 10번 지도의 5번째 사진이란 것을 말한다). 녹음 테이프를 복사해 놓아 地圖의 표시 사항과 더불어 점검해 놓는다. 어떤 답사 지역에서는 토론하면서 야외사진을 찍다 보니 삼시간에 처리되어 사진 번호(심지어 지도 번호)가 당시 그 지역의 지도와 불일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野外에서 연필을 사용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슬라이드 번호와 녹음 테이프가 서로 일치되도록 한 다음 지도에 표시한 것들을 점검해 보고 그것을 지울 수 없도록 최종적으로 잉크로 기재한다. 踏査經路를 칼라펜으로 각각의 地圖에 잉크로 표시해 놓는다. 만약에 같은 지역을 한번

이상 답사한 경우에는 다른 색으로 표한다. 특정 지도에 최초로 슬라이드 번호를 기재할 때 도엽 번호를 함께 적는다. 결국 다음에는 그 후의 사진 번호만을 기재하게 되어 그것은 단지 사진을 촬영한 위치를 보이게 될 뿐이다. 또한 여백에 하나의 범례로서 일정 답사 지역에서 찍은 슬라이드번호를 표시해 놓는다. 즉 79-K-⑩-5-12, 79-K-⑭-10-18(그림)과 같은 것이다. 이는 어떤 지역을 갈 때와 올 때 두번 사진 찍었을 때 표시한 번호들이다.

나는 슬라이드 필름과 녹음 테이프를 같은 바인더에 보관하여 둔다. 왜냐하면 이들 자료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도 하고, 조사된 주제를 중심으로 한 논문을 준비하거나 강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점검해 볼 때 슬라이드, 녹음, 지도 위치를 손쉽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음기는 호주머니만한 크기로 작아야 한다. 비록 녹음기의 다른 조건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작아야 하고, 다음으로 1. 녹음 테이프의 한 면이 적어도 30분을 녹음할 정도로 녹음 시간이 길어야 하며, 2. 그룹 토론이나 속삭이는 말 또는 話者를 놀라게 하거나 머뭇거리게 하지 않고 정보를 계속 녹음시킬 수 있도록 感度가 좋아야 하고, 3. 답사하는 이들이 野外 觀察을 하며 녹음하고 사진을 찍기에 열중하므로 어느 정도 녹음이 진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지 못한채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므로 녹음 테이프가 끝날 때 어떤 신호를 보내주며, 4. 테이프를 전후로 신속하게 감아주는 것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녹음기들이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비록 상술한 절차가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이를 나누어 실행하게 되므로(즉 답사 전, 중, 후) 쉽게 해 낼 수 있다.